



한국인의 뿌리

양보련 楊寶蓮

Pauline Yeung

홍콩정부재정경제보좌관
香港政府財經事務及庫務局局長政治助理
Political Assistant to Secretary for
Financial Services and the Treasury



저는 홍콩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1975년 캐세이 퍼시픽(Cathay Pacific) 근무를 위해 홍콩에 오셔서 현재 40년 이상을 홍콩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홍콩에서 태어난 저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광둥어와 한국어를 모두 사용했으며 또 학교에서는 영어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언어를 써야 할지 혼돈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유치원 입학 면접에서는 "apple"이라는 영어 단어 대신 "사과"를 대답하여 지원했던 1지망 유치원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다행히도 이것은 제 미래의 교육에 영향을 끼치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매주 일요일 가족과 함께 한국 식당에 가서 BBQ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가는 단골손님이었으면 식당 직원들은 우리가 식탁에 앉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을 주문할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평일 집에서는 중국음식을 먹었지만 식탁에는 김치와 감이 늘 함께 있었습니다.

저의 한국적 뿌리는 저로 하여금 국제 관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중학생 때 저는 한반도의 역사와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의 아시아 지정학적 역할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는 저로 하여금 중국의 부상에 대해 중국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관점에서도 관심을 갖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후에 제가 세계를 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저는 미국 프린스턴대학에서 국제 관계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인 친구들을 처음 사귀어 본 것은 대학에서였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친구들이 거의 홍콩사람들이었기에 대학에서 만난 한국 친구들과의 시간은 새롭고 즐거우면서도 제게는 아주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제가 미국에서 영어를 배운 것보다 한국어를 배웠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졸업 후에도 친척 어른들을 뵈러 한국에 갈 때는 대학친구들도 빼놓지 않고 만나고 있습니다.

홍콩으로 돌아온 후 저는 금융 분야에서 일하면서 중국, 한국 및 기타 아시아 시장을 연구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한국예술과 문화에도 관심을 갖게 되어 미술품 경매사 크리스티 (Christie's)의 아시아 예술 강좌를 수강했고 이우환과 박서보 등 단색화 예술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또한 아트 갤러리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한국 국제 아트 페어에도 참석했으며 당시 제가 만들어 운영하던 개인 블로그에 한국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관한 글을 써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홍콩 정부의 주요 업무에서는 광둥어와 영어를 사용하지만 한국 핀테크 (Fintech) 전문가, 국회의원, 그리고 외교부 대사와 같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자리는 제게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또한 가끔씩 홍콩 친구와 직장 동료들을 초대해 한국식당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갈비, 파전, 막걸리 등을 함께 즐기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지닌 한국적 문화 배경이 한국인과 중국인 모두에게 높이 평가되는 자산이자 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의 인연은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역할에서 홍콩 정부에 다양성을 가져다주며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든 홍콩 사람들이 서로의 다른 민족성과 배경, 그리고 성장과 관계없이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확신합니다. 홍콩은 국제금융의 중심입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여 더욱 아름다운 홍콩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자 | 프린스턴 대학교 (Princeton University)의 우드로우 윌슨 학교 (Woodrow Wilson School)와 런던예술 대학교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의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Central Saint Martins)를 졸업했다.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와 홍콩중앙은행 (Hong Kong Monetary Authority)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아 2017년 홍콩 정부로부터 재정경제보좌관으로 임명되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영어, 광둥어, 북경어를 비롯해 한국어와 일본어에 능통하다.

